[기자 칼럼] 미셸 박 위원의 매력[LA 중앙일보]

임상환/사회부 기자

LOS ANGELES 중앙일보 USA 중앙방송

기사입력: 10.14.08

"캘리포니아주 여성 공화당 정치인 중 주정부 최고위직에 올랐습니다. 또 가주 한인 정치인 중 최고위 선출직 공무원입니다. 오랜 친구 미셸 박 가주조세형평위원을 소개합니다."

지난 달 29 일 웨스트민스터에서 열린 아태계 커뮤니티 초청행사에 참석한 일레인 차오 연방 노동부장관이 미셸 박 위원을 소개할 때 한 말이다.

청중의 대부분을 차지한 베트남계 주민들은 자리에서 일어선 박 위원을 경탄어린 표정으로 바라보며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. 베트남계 인사들 사이에서 약간은 어색한 듯한 표정으로 앉아 있던 한인 내빈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.

행사가 끝나고 난 뒤 만난 한 한인은 이렇게 말했다. "박 위원이 대단한 인물이었네요. 자주 봐서 그런지 평소엔 몰랐는데 말이예요."

박 위원을 아는 많은 한인들은 비슷한 느낌을 가졌을 것이다. 이웃처럼 친숙한 사람 높은 자리에 있긴 한 것 같은데 고위직 공무원같은 느낌이 없는 사람….

박 위원은 그런 인물이다. 조세형평위원에 당선되기 전이나 당선된 후나 목에 힘주지 않고 전부터 알던 이들을 보면 먼저 웃음짓고 인사를 건네는 이가 바로 박 위원이다.

소탈함과 겸손함은 정치인으로서 큰 자산이다. 한국의 김영삼 미국의 레이건과 부시 대통령은 친화력 덕분에 대통령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.

연방하원의원 주하원의원도 대개 이웃집 아저씨처럼 느낄 수 있도록 이미지를 관리하려 한다. 하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높은 직위에 있는 이들일수록 부드러운 외면 뒤에 강한 카리스마가 존재한다.

박 위원의 친화력과 한결같은 처신은 특히 한인사회에서 위력을 발휘한다. 지금까지 그를 두고 "저 사람 뜨고 나더니 변했어"란 말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.

뜬 인물이 소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신선한 충격이다. 그 인물이 높은 위치에 있을 수록 파격은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.

여타 한인 정치인과 단체장들이 배워야 할 덕목이 아닐 수 없다.

사람인지라 아쉬울 때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뒤의 마음이 같을 수는 없다. 당연한 일이다.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변치 않는 모습은 더 가치가 있다. 특히 정치인이라면 친화력과 한결같은 태도를 갈고 닦을 필요가 있다.

이쯤에서 뜨고 나서 변한 듯한 이들을 위한 변명 한 가지.

한인들이 나름 성공한 인물들에 대해 평가할 때 가장 많이 잡는 흠 중 하나가 "저 사람 뜨고 나더니 변했어"다. 물론 변한 이에게도 책임이 있다. 하지만 그만의 탓일까.

예전에 좀 도와줬다고 공적인 자리에서 세칭 '뜬 인물'을 함부로 대하는 한인을 보면 갑갑해진다. 친분 과시도 때와 장소가 있다. '내가 이 사람을 키웠다'는 식의 과시라면 더더욱 곤란하다. 타인종들은 허물없이 지내던 인물도 뜨고 나면 적어도 공석에선 격에 맞도록 깎듯이 예우한다.

도움의 대가로 부담스러운 청탁을 건네고 뜻대로 안 되면 '변했다'며 흥분하는 이도 있다.

선거가 다가오고 있다. 이번 선거에서 되도록 많은 한인들이 '뜨길' 바란다. 변치 말란 주문도 일단 뜨고 나야 가능하다.